복음적 독심술의 기본

(마태복음 13:1~23)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 독심술의 기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복음적 독심술의 기본'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비유의 장입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주시고 직접 해설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을 통해서는 이 비유가 복음을 받아들임과 천국을 현실로 삼음의 연관성에 대한 것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관성에 집중하여 오늘 본문의 18~23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내일은 앞부분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결실을 맺는 옥토와 그렇지 못한 세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옥토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과 연관하여 다룰 것이고 오늘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입니다. 제목을 "복음적 독심술의 기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특정한 관계 안에 들어있음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마음은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해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두고 철학에서는 인간

을 향자(向自)적 존재라 일컫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실 때에는 어떤 대상을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할 대상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다는 것은 애초에 멀리 있던 천국을 가까이 가져오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지나쳐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것은 원래부터 가장 가까이 있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가까우신 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또한 우리 마음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나의 몸이나 가족일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과 천국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염두에 두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의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신 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큰 존재감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만날 때에 이러한 기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결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 혹은 학식의 유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까이 가져오신 천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사람의 마음을 보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군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에 이러한 일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호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는 이 비유를 이해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과 표정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때에 상대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까이 가져오신 천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상대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과 행동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독심술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람의 마음은 옥토를 포함한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기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독심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마음부터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는 밭고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고랑은 다져져서 단단하기에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떨어진 씨는 새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복음에 대해 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주제어는 현실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존재하는 사실들 중에서 마음이 닿는 대상만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실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서 인도는 참 멀리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가족이 가있는 분들은 인도가 무척 가깝고 관심이 가는 나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인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에 저의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에 대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천국을 사실로 믿는 사람과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국을 애초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천국을 사실로 믿으면서도 현실감으로 느끼지 못하거나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많은 사실들 중에서 마음이 닿는 것들만이 현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사실로는 인정하지만 현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사회보장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별 보장 없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자면 스웨덴 국민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현실로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사회보장이 미흡하든 어떻든 당장 살아가는 곳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국을 나와는 무관한 스웨덴 같은 곳으로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사실들 중에 현실을 선택하고 인정하는 작업이 완결된 상태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열을 내며 상대 정당을 비난하거나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서 천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는 쉽게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입니다. 설령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마음에서 천국은 멀리 내동댕이쳐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굳어져서 천국이 현실로 끼어들어올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천국을 현실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 조건 없이 천국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에 참여함을 통해서만 마음은 옥토가 되어 천국을

현실로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국을 그리워할 수 없다면 현실이 되는 길도 허락될 수 없습니다. 천국이 현실 되는 것을 마음이 거부한 상태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의 마음가짐입니다. 제일 불행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께서는 그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밭이란 흔히 생각하는 자갈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이란 거대한 석회암층 위에 흙이 얕게 덮여있는 지형을 의미합니다. 흙이 얕기 때문에 해가 뜨면 정상적인 토양보다 더 빨리 덥혀져서 싹이 빨리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곧 말라 죽습니다. 이 상태는 마음이 어떤 대상들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애착을 가진 대상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복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가의 아들과 환경미화원의 딸이 교제를 하게 되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자신을 향한 어떤 경멸과 멸시도 견뎌낼 수 있었지만 부모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자 참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동안 받은 굴욕과 모욕은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모욕만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가 천국과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애착이라는 측면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하게끔 할 수 있듯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 천국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력 다툼 중인 마피아들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 세력이 기어이 가족에게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피해를 입자 분노한 마피아가 이권도 포기한 채 처절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바로 애착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시자 괴로워하며 떠나갑니다.
나인 성 과부의 경우에는 외아들이 바로 애착의 대상이었습니다. 외아들이 모든 차별을 견뎌내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설령 임금님이라도 외아들을 건드리려고 한다면 과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애착의 제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애착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해 깊은 애

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환난과 핍박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집 앞에 버린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핍박을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볼 때에 핍박과 탄압을 받는다고 여기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에 이것을 버리라는 요구를 환난과 핍박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애착의 대상입니다. 돈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여유를 보입니다. 전도를 받으면 금세 천국을 받아들이고 은혜도 받고 교회생활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얕은 흙과 같은 믿음 아래에는 돈이라는 큰 바위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 돈이라는 바위가 없었다면 천국에 대한 반응은 다소 느릴지라도 깊고 진지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바위가 존재하기에 돈과 연관된 어떤 문제라도 건드린다면 용의 역린을 건드린 것처럼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역린이었고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이 역린이었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다지만 목사도 장로도 친구도 이것만은 건드릴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밭에 뿌린 씨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또 다른 특징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십자가 생활화가 어렵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세상의 모든 대상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죽지 못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로써 어떻게 목회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로 선택하셨을 때에는 목회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로 선택하신 것은 자녀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장의 대표로 선택하셨다면 사업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설령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애착을 버릴 수 없다면 천국을 갖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위 층이 무엇인지 시험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명의 자녀가 죽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마음에서 열 자녀가 바위 층이었다면 하나님을 등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이 사라질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마음에서 재물이 바위 층이었다면 하나님을 등졌을 것입니다. 아내도 잃고 친구들도 잃고 건강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바위 층을 뚫고 하나님을 향해갑니다. 모든 것들이 소중하였지만 끝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마음가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애착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가지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애착의 대상을 건드리지 않고 빼앗아가지 않는 선에서만 천국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상태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해 스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천국을 사실로 믿고 천국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천국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더 많고 더 빠르게 세상의 대상들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상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덩굴처럼 마음을 휩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도 같이 빨아들이지만 훨씬 많은 시간을 세상에 할애하고 있기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돈 문제로 인해 타박하는 소리를 듣다보면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설령 배우자의 말조차도 개 짖는 소리로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까지 이르는 천국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개 짖는 소리에 천국열차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나랏일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야당과 여당은 늘 싸우고, 외국과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북한은 늘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고자 한다면 이 소식들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내 마음에 대해서는 개 짖는 소리로 들려야만 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떼어낸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워함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정치인들을 미워하고 사회문제에 신경 쓰느라 마음을 세상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열차를 탄 마음에서는 모두 개 짖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코 그 분들이 개만도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열차를 멈춰 세우고 세상의 문제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면 그것이야 말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것을 믿으시고 미워함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작 정치인들을 미워하느라 천국을 잃는다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할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에 정신이 팔려서 열차를 세운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상태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성을 빠져나올 때에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소금기둥이 되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꾀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빨아들이고 이끌어서 십자가를 볼 수 없게 하고 세상을 향하게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명확하게 보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대해 스펀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대상들이 개처럼 짖을 지라도 천국열차에 올라타고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사용하시는 독심술의 기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먼저 그 방법대로 내 마음을 살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천국을 관심사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